

곡성, '숲에서 뛰놀며 행복한 아이들... 꿈놀자학교 숲교육'

행복한 성장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마을의 연결 지원 지역의 70% 이상 차지하는 숲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자연서 놀며 미래 인재로 키운다는 야심찬 프로그램

곡성에는 아주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다. 이곳에서는 곡성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을을 놀이터이자 배움터로 재밌게 놀면서 지역 안에서 행복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연결을 지원한다.

바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 놀이교육혁신으로 추진 중인 '꿈놀자학교' 이야기이다.

지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에서 놀면서 미래 인재로 키운다는 꿈놀자학교의 야심찬 프로그램이다.

2019년 주말 가족체험형으로 시작된 숲교육은 반구정트리클라이밍·제월섬오리엔티어링·삼인동알락산터데크니과 민간유아숲 1호인 삼진강도깨비마을숲체험 등 곡성의 아름다운 숲 곳곳에서 실시되었다. 실시되자마자 곡성 뿐 아니라 타지역 학부모들의 반응에서 인기를 실감케 하였다.

2020년에는 이를 학교와 마을 교육과정으로

연계시켰다. 곡성 관내 초등학교 마을교육과정으로 5개의 숲 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성하여 곡성 전체 초등학교에서 총 70차 수업을 신청하여 80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마을교육과정으로 운영된 숲교육은 곡성군 입면 소재 제월섬에서 진행된 '트리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밧줄놀이'와 고달면 소재 '삼진강도깨비마을 숲체험', 옥곡면 소재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 실시한 '미술관에서 놀자'까지 총 5개이다.

이제는 단지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자연을 만지고 몸으로 느끼며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 감수성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배움을 전달하고 있다.

숲교육은 주말에도 계속되었다. 주말 꿈놀자학교 숲교육은 이미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서 매회 10분도 안되어 마감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초여름과 가을 두차례 진행된 팝업밧줄놀이 '상상파티'는 하루만에 500명의 인원이 몰리며 숲 놀이터로써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 상상파티 참가자들은 "곡성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수 있고, 부모들은 휴식할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 고 얘기했다.

트리클라이밍은 아보리스트와 함께 밧줄과 매듭을 이용해 나무에 오르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도전감,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는 기분을 만끽하는 숲체험이다. 총 8회 진행된 트리클라이밍은 곡성 인근 지역 뿐 아니라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와 제월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으며, 숲 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다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11월 8일 올해 마지막 숲교육으로 진행된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독도법을 배우고 숲을 뛰어다니며 목표지점을 찾아 빠르게 돌아오는 숲체험으로 제월섬 여기저기를 누비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가을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경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마을교육과정에 참여한 임민초 이지는 교사는 "처음에는 숲교육에 반신반의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기대 이상이였다. 그냥 놀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며 교과와 연계한 내용을 풍성하게 담아갈 수 있는 교육이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하고 싶고, 주변 선생님들에게도 홍보하고 있다." 며 웃으며 말했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잘 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놀 구조를 만들

어야 한다. 내년에는 숲교육을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를 데리고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는 학교놀이터도 구상 중에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시절의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꿈이 있는 지역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흥 명덕초등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눈길'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



장흥 명덕초등학교(교장 최귀덕)는 인권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자율 동아리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5월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1·2학년으로 구성된 사제동행 인권동아리는 명덕초 교목 후두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호

두팀과 인권지킴이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역할을 정해 교내의 활동을 전개했다.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한 수업을 전개하고, 인권과 관련된 동화책 읽어 주기를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담임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을 사랑, 우정, 배려, 양보로 관련해서 실천하도록 지도했다.

학생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교내에서 전개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아저씨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 현관에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다. 그 옆에는 감사의 편지도 작성하여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피켓과 어깨띠를 만들어 들고 캠페인도 전개했다. 전쟁이나 굿주림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행사도 전개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1·2학년들의 인권보호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용돈을 기부하기도 했다.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해 장흥군청 앞에서 세계 어린이 인권보호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함께 인권스티커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군민들도 어린 학생들을 칭찬하며 기부행사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자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주동부교육청, '위(Wee)로 하는 양육특강' 실시

'빛을 주는 부모되기'

광주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가 11·18일 두 차례에 걸쳐 동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Wee)로 하는 양육특강 '빛을 주는 부모되기'를 실시한다.

12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에 따르면 '빛을 주는 부모되기' 양육특강은 대상관계 가족상담 전문가 김미란심리상담센터 김미란

소장을 초빙해 소규모 집단상담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양육특강에서 대상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적 대화법을 참여자들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증진 및 안정 애착 형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인호기자

'실감 콘텐츠 영상제작 전문 인력양성 교육' 시행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영상디자인학과가 최근 2021년도 1월 20일까지 운영되는 '실감 콘텐츠 영상제작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안내 시간을 가졌다.

순천대학교는 콘텐츠 개발 융합기술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전남 콘텐츠 산업의 인적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대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과는 사업과 관련해 '실감 콘텐츠 영상제작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영상제작과 VR/AR 이론, 전남 지역의 실감 콘텐츠 전 기업을 통한 현장 실습, 프로젝트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에게는 영상 전문가를 통한 취업상담과 맞춤형 취업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